

D-99 20대 총선 5대 관전 포인트

4·13 총선이 4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 분열이라는 변수가 돌출하면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판세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총선은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은 선거의 의미도 있지만 내년 12월 치러지는 대선에 판세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① '안철수 신당' 파괴력 얼마나

이번 총선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안철수 신당'의 선전 여부다. 새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1위를 달리는 가운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황에서 야권의 신당 세력이 힘을 모을 수 있을지, 나아가 선거 막판 터볼

어민주당과 연대 또는 후보단일화 등을 이룰 수 있을지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신당이 파괴력을 보일 경우 양당체제를 허물고 지난 1996년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139석), 국민회의(79석), 자민련(50석) 체제가 형성된 지 20년 만에 3당 체제가 부활할 수 있다.

② 180석 돌파 정당 나올까

새누리당은 총선 목표를 '180석 확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현재도 원내 과반인 156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야권 분열을 틈타 180석 이상을 얻어 원내 5분의 3 이상 의결 요건을 규정한 현행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

법')의 한계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총선 결과 제1당이 원내 과반의석을 가까이 얻었을 뿐 단 한차례도 160석 이상을 얻은 정당은 없었다.

③ 현역 물갈이 폭은 얼마나

총선 때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현역 의원이 얼마나 탈락하느냐다. 현역 의원의 교체 비율에 따라 정치권의 세대·세력교체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이 다시 여의도로 복귀할 확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실망감이 어느 때보다 클 뿐 아니라 야권 재편 과정에서 혁신공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광주에서 박주선·장병완·김기정·김동철·이용섭 의원, 전남에서 박지원·김영록·이운석·유운근·이낙연·김성근·주승용·김선동 의원이 다시 당선됐다. 광주 8명, 전남 12명 의원 중 8명, 즉 전체 20명 의원 중에 13명이 생존한 것이다. 따라서 교체율은 35%였다. 현역 의원 65%가 되살아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정치신인들에게 최대의 기회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는 야권 재편이 정치신인에게 더욱 유리한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런 면에서 정치신인들의 역할과 활동도 이번 호남 총선에서 주요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④ 어느 당이 '호남 1당' 될까

호남은 이번 총선에서 야당 간 경쟁으로 '1당 독점'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이 커졌다. 1988년 13대 총선 이후 DJ(김대중)가 이끌거나 승계한 정당이 호남 의석

을 싹쓸이하다시피 해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 당이 호남 1당이 될지, 한 정당으로 표가 쏠릴지, 아니면 균전 체제로 변화할지 등이 관전 포인트다.

⑤ 영호남 지역주의 벽 뚫릴까

야권 분열이 새누리당에게 호남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수도권 등이야 야권분열이 새누리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호남에서는 단순한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고지를 확보했다고 보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계속된 호남 푸대접이 이 의원 개인표를 잠식하고 있어 신당 바람이 거세게 분다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는 대구 수성갑에 도전한 터민주 김부겸 전 의원이 공고한 TK 지역주의 벽을 뚫느냐가 관심사다.

순천·곡성 이정현 의원의 지역구 재선도 관심사다. 이 의원 측은 그동안의 왕성한 활동으로 재선에 유리한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 에너지산업 10년간 16조5000억 투입

효성·LG화학·삼성 SDI 등 전기차 부품 기업 유치  
탄소제로 자립섬 50개·에너지기업 700개·일자리 3만개  
침체기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기간산업 대안으로 육성

전남도가 에너지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향후 10년간 16조5000억 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육성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침체기에 접어든 전남 기간산업의 대안으로 에너지산업을 내놓은 것이다. 전남도는 4일 '에너지산업 육성 10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에너지신산업 육성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관련 기업, 효성, LS산전 등 모터 관련 기업 등이 주 타깃이다. 충전서비스, 배터리 리스, 렌트 등 전기차동차 서비스산업도 창출해나갈 방침이다. 나주 혁신산업단지과 대마산단에 전기차동차 연구·시험 인프라, 광양·울촌산단에 전기차동차 금속·비금속 소재산업, 나

주 에너지밸리에 충전 인프라 및 정보통신 기술(ICT) 서비스 산업 등 권역별로 전기차 관련 산업을 조성하는 한편 광주시와 공조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디젤발전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여수 거문도 등 전남의 유인도 74곳 가운데 50곳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전기가동차 5414대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빛가람 에너지밸리에는 에너지 관련 기업 700개와 연구기관을 유치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한편 우수 에너지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빛가람 산학융합캠퍼스'를 설립하기로 했다. 또 정부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위해 광주의 연구개발특구(18.7㎢)에 8.04㎢를 추가해 에너지밸리를 특구 내에 포함하는 방안을 광주시와 협의 중이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본격추진해 현재 3.75%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자립율을

2025년까지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까지 16조5117억원을 투입해 계획으로, 전체 사업비의 93.3%(15조4066억원)에 달하는 민간자본의 조달 여부가 사업 성패를 가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생산유발 18조6000억원 등 24조2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기중 전남도 정부부처사는 이날 "국내·외 산업 환경, 전남도의 기존 주력산업들의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한 끝에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에너지산업을 선택한 것"이라며 "올해를 전남 에너지산업 육성 원년으로 삼아 그 기틀을 확고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소망 메시지 담은 '희망풍선' 날리기 2016년 병신년 새해를 맞아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과 직원들이 4일 오전 서구청 앞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담은 '희망풍선'을 날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감사위원회  
초대 위원장 성문옥씨



광주시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성문옥(56) 관리과장을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성 위원장은 1981년 공직에 입문해 행정자치부 감사관, 인천시 재정전산감사단장, 인천시 감사관을 역임한 감사·세무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성 위원장은 "위원들의 전문가적 역량을 결집해 처음 출범한 합의제 감사위원회가 시장 발전을 돕고 외부 영향으로부터 흔들림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기는 5일부터 2년간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0년뒤 무엇으로 먹고 살지... 4대개혁 절박"

박대통령, 신년 인사회

박근혜 대통령은 4일 "10년 뒤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먹고살지,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곤 한다"며 "그때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과 새누리당 김부성 대표 등 여당 지도부, 경제5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이 같이 밝혔



다. 박 대통령은 또 "정치가 국민의 민생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며 "정치권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서 변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해 국민의 삶을 돌보는 참된 정치를 실천에 옮겨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하고 공직자들은 부패 척결과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 전국 최초 소상공인 대출금리 인하

전남도와 신협이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대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전남도와 신협중앙회는 최근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통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이 이용하는 '일일수납대출(일명 일수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협의 일수대출에 대해 100% 특별보증하고, 신협중앙회는 전남도에 소재한 신협의 일수대출 금리를 평균 14.8%에서 5.9% 이내로 인하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획기적인 서민금융 지원 시책이

다. 이를 계기로 신협 일수대출을 이용하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 800여 명(2015년 기준)이 8억여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추후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일수대출 금리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

Advertisement for Sochoondong Moardream Apartment and Onsegye Apartment. Features include: KTX 5-minute distance, Gwangju City 10-minute distance, Naaju Hyeonsindosi 20-minute distance, Muam Airport 10-minute distance, Excellent educational environment (Aejeong, Jungangcho, Jeonggung, Godeunggyo, Gwangju, Honam). Prices range from 41m² to 107m². Contact: 062-383-6400.